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누가복음-행전의 신학

세션 6, 대럴 복의 신학, 새로운 공동체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6, Darrell Bock의 신학,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다루면서 누가복음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이후 강의에서는 사도행전을 다루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입을 열어 옛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Luke와 그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기울여 주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행전 신학에 대한 Darrell Bock의 소개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그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부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압력입니다.

반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모든 결정, 예수님을 위한 모든 결정에는 반대가 따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구분에 대한 언급은 누가복음 2:34, 35에서 일찍 나오며, 구분에 대한 언급은 복음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8:14, 15, 누가복음 9:21-23, 누가복음 9:61-62, 누가복음 12:4-9, 22-34. 누가복음 22:35-38. 그래서 저는 그 구절들을 반복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14-15, 누가복음 9:21-23, 61-62, 누가복음 12:4-9, 22-34, 누가복음 22:35-38.

이미 2장에서 시므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 보라 이 아이는 아기 예수라 하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라. 이는 넘어짐과 흥함이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에 대한 심판과 축복이요 반대되는 표징이니라.

그래서 이미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반에 걸쳐 이 참고 문헌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 번 읽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9장 22절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복음에 담대하게 반응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그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확고부동함과 충실함은 제자의 표시입니다. 확고부동하라는 누가의 권고는 그의 목적과 상황의 한 요소를 드러냅니다. 공동체 내부와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갈등의 압력으로 인해 테오피루스와 다른 모든 독자들은 안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고민하는 제자는 새로운 운동에 속해 있으며, 그는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그는 테오피루스인데,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의 약속,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제시되었지만 강제로 뚜렷해졌습니다. 그 독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느니라(행 6:7). 이제 이곳에는 족장들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보고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행 13:21-39).

일부 기능은 이를 별개의 것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새로움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되며, 예수님이 비록 육체적으로 부재하시더라도 자신의 임재를

표현하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행 2:14-40, 행 11:15).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겪은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는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신자들을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통합시키심으로써 주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물리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는 현재의 리더십의 경건함이나 현재의 문화적 기준과는 달리 뚜렷한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눅 6:27-36, 12:1, 14:1-14, 22:24-27).

새로운 공동체의 또 다른 부제목은 믿음과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것의 근본적인 역할은 이미 반응의 그림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신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시켜 줍니다.

최초의 구원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 누가복음 5:31-32, 누가복음 15:17-21, 누가복음 12:22-23.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에는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초기 믿음의 예가 될 것입니다(12:22-32장).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맏소사, 하나님은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느니라. 그분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증은 작은 피조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풀이나 새보다 훨씬 더 귀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즉,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이 이런 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30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을 구하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런 자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31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주님을 아는 사람은 참새도 돌보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 곧 영적 가족인 자들을 돌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헌신, 또 다른 부제목인 제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없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23, 누가복음 9:57-62, 누가복음 14:25-35.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정말로 가족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증오심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빠와 엄마를 골라보자. 아니요, 제5계명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나를 향한 너희의 헌신과 사랑에 비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헌신은 오히려 미움으로 보인다는 말씀이다. 즉, 그분은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는 동양적 대조라고 불리는 급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첫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매일의 헌신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유는 제자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노력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십자가 들보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순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그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분께 헌신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 다른 부제목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공동체에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명의 초기 성취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부르심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그것이 이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24:47.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누가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들의 귀에 울리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헌신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확의 주인과 함께 나눕니다.

복음은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24장에서 본 것처럼 부르심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31, 32.

누가복음 19:10. 인자의 온 것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포함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누가복음은 또한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는 부르심과 구원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에 대한 선교의 초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임무의 초점을 보여줍니다.

백 마리 중 한 마리의 양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남겨두고 가서 하나를 회복시킵니다. 10개의 동전 중 한 닢은 동전을 찾을 때까지 바닥을 쓸던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인 아들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 백 마리 중 한 마리, 동전 10개 중 한 마리, 아들 둘 중 한 마리. 숫자의 감소를 강조하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아들, 한 아들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이 하늘에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부를 지향하는 단체가 아니라 외부를 향해 나아가는 단체이다.

증언과 행위의 증언이라는 주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소제목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의지하는 기도로 표현됩니다(눅 11:1-13).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가르침과 임재를 흡수하는 마리아의 올바른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눅 10:38-42). 마르다는 분주하게 봉사하고 봉사했으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도 그러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 끝부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이 세 사람 중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르시되 그 율법사는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 대답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이 비유의 영웅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대 영웅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훨씬 더 높은 지위와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했고, 이웃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바쳤으며, 자신의 힘을 다해 도와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보살핌과 방과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돈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계속해서 가던 중에 배에 탔습니다. 그것은 이웃이 되는 것, 이웃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부르심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심과 동정심은 예수의 사역에서 보여주었듯이 인종, 성별, 계층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조엘 그린의 사회학적 관점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반문화적이며 심지어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은혜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에 대한 범주도 없고, 주는 개념에 대한 이해도 없고,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로마 문화에서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후원자-고객 관계의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지배적인 조직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었습니다.

기도. 기도는 권고와 모범으로 표시됩니다. 누가복음 11:1-13.

누가복음 18:1-8, 9-14. 누가복음 22:40. 예수님께서서는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생활하셨습니다. 기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청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뜻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 예수님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공급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또 다른 표제, 인내와 고난, 하나님의 새 백성 아래에 있는 또 다른 부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언급한 지속성을 다루는 많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13-15, 9:23, 18:8, 21:19. 누가복음 8:13-15, 9:23, 18:8, 21:19.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러한 끈기를 자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23-31.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인내와 기대와 연결됩니다.

또 다른 소제목은 “경계, 인내, 담대함”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1-12.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누가복음 12:35-48, 19:11-27, 18:8. 누가복음 12:35-48, 19:11-27, 18:8.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8:15. 누가복음에서 종말론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예수님은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십니다. 실현되지 않은 약속이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7:22-37, 누가복음 21:5-38.

17:22-37, 21:5-38. 서기 70년에 임한 예루살렘 심판은 최후 심판의 보증이자 상징으로 여겨진다. 누가는 두 가지 모두를 예언하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은 전조입니다.

그것은 악의 최종 멸망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인류가 엄중한 심판을 받는 무서운 기간이 될 것이며,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누가는 돌아옴의 현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위해서는 제자들이 충실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좋은 소식에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심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0:42 . 사도행전 17:31.

아버지가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아들도 재판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가 곧 증거하라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에 대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7:31.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느니라. 그것은 현존하는 미래의 성취를 보장하는 진지한 현재 성취에 대한 예언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미래에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다는 보장으로 볼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지금 일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종말론적 담화에서 재림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누가복음 21:5~20. 돌아오는 때는 알 수 없으나 때가 이르면 속히 이르리라.

누가복음 21장. 나는 아직 이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론적 담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누가복음 21장에 이 말이 나온다. 21:5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귀한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남지 아니하리라 아래에.

선생님이여 그들이 묻되 언제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 사람이요 때가 가까웠다 하리라.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단번에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족들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겠으며, 내 이름을 위해 너희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증거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묵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내가 네게 대적이 능히 맞서거나 변론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인내로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떠나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는 기록된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밴 여인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것임이니라.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포로가 되어 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또 일월성신과 땅에는 징조가 있겠고 민족들이 곤고하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아 혼란한 일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고 예감하여 기절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왔느니라 그런 다음 그분은 그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나면 너희가 자연히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일이 다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함정처럼 당신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는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람산이라 불리는 산에 머무르시니라. 그리고 이른 아침에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적 담론은 당연히 유명합니다. 더 문제는 Luke가 얼마나 빨리 복귀를 예상하는지입니다. 일부 테스트에서는 높은 수준의 즉시성을 시사합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8:8, 누가복음 21:32.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나 그러한 본문은 재림이 신성한 달력에서 다음 번에 있을 것이라는 점(누가복음 18:8, 사도행전 3:18-21) 또는 재림이 올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24-37, 누가복음 21:25-36. 누가의 입장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것이 어느 순간에라도 올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Bock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임박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해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임박한 말은 그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격 속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고 말하는 우리의 무지한 말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중간 구절은 우리에게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지 말며 삶과 문화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계획하고 일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지의 구절은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것에 대해 어리석게도 날짜를 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던 1800년대 이래 교회사를 어지럽게 만든 슬픈 역사와 바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는 단체종말론과 구별되는 개인종말론의 현실을 독특하게 지적한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개의 독특한 텍스트에서 누가는 죽음을 낙원으로의 전환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3:42, 43. 죽어가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십표를

옳게 이것을 미래에 대한 모호한 진술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진실로 나는 오늘 미래의 알려지지 않은 시간에 당신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워드 마셜(Howard Marshall)이 누가복음에 대한 학술적인 주석에서 보여주듯이, 아마도 신약 국제 그리스어 성경 주석 시리즈에서 그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리고 다른 구절은 인자가 신실한 증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행 7:55, 56).

물론 신실한 증인은 스테반 집사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격분한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격분합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7:54, 그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을 따라 행 7:55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돌로 쳐죽였습니다.

특히 바흐는 예수께서 두 팔을 벌려 순교자를 자신의 면전으로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죽음을 천국으로의 전환으로 묘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 누가복음 22:42, 43.

또는 인자가 신실한 증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행 7:55, 56), 받아들임이 표시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자, 인자를 환영하기 위해 서 계신 예수에 대한 스테반의 그림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완성되지 않은 현재의 중간 기간 문제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중간 현실의 존재로 인해 다소 완화됩니다.

내가 높이 평가하고 많은 것을 배운 그의 작업을 조엘 그린(Joel Green)이 오늘날 중간 상태의 현실을 부정하려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역사적인 교회와 그 신조와 고백을 지지하며 Darrell Bock과 함께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바울의 구절도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마음, 영원한 중간 상태의

현실과 영원한 상태. 이 모든 것에서 미래는 현재에 대한 관점, 특히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흐의 말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진보적인 세대주의자가 종말론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매우 교화적입니다.

그의 코와 손과 마음은 확실히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속해 있습니다. “기쁨과 찬양” 은 또 다른 표제입니다 .

누가복음 전체에는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눅 1:14).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에게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르되 너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탄생을 기뻐하리라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사가랴가 그것을 믿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참으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아이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존이라고 말했을 때 놀라운 말로 깨졌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의 새로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라고 하신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도 마찬가지로 이 때, 즉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쁨을 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은 아마 유대 민족 전체가 이 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일을 염두에 두셨나요? 이방인들에게 증언해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아니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기쁨도, 누가복음도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8:13. 바위 위에 있는 자, 이는 땅의 비유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제 이 일이 드러나니 그들의 종말은 좋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참된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네 가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분명해집니다. 넷째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보이는데,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72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뭔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악마보다 강하지도, 악마보다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둘 다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깨뜨린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잃어버린 물건과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한 하늘의 반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7. 내 기억을 확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잃어버린 동전, 15:10. 잃어버린 아들의 탕자의 비유에는 천국의 기쁨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파티가 진행되는 부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바르는 이 점을 몇 번이나 언급했습니까?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 주시고 성흔이 있는 손과 발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동안, 나는 성경의 정직함, 정직함, 온전함, 그 솔직함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쁨으로 인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 물고기 몇 마리를 먹었습니다. 복음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기쁨과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제자도에 대한 방해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마지막 제목입니다.

돈의 역할은 누가복음 에서 많이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부정적인 경고와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8:14, 누가복음 12:13~21. 누가복음 16:1~15. 그리고 19~31절. 누가복음 18:18~25. 그러나 세 번째 복음서에도 긍정적인 예가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8:1~3. 누가복음 19:1~10. 삭개오. 누가복음 21:1~4. 사도행전 4:36, 37.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누가가 부 자체를 비난하는지 여부입니다.

남용한 돈을 아낌없이 줬지만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거의 버리지 않은 삭개오의 예는 문제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28~30.

자원을 넘어서 가족을 떠나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압력이 부인을 낳을 때 그들은 실패를 드러냅니다. 가족이나 두려워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원 문제도 완벽한 반응이나 마지막 동전까지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지향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팔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제자들과 삭개오는 그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요약하면, 누가는 제자도를 방해하는 요소에는 자원뿐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1~12. 생활의 염려를 염려합니다. 누가복음 8:14.

결론적으로, Luke의 생각에 대한 Bock의 유용한 소개입니다. 요약. 누가복음은 목회적이고 신학적이고 역사적이다.

하나님 계획의 현실은 개인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종의 오래된 장벽이 제거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위로부터 권세를 행사하시는 약속된 메시아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어느 날 돌아올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 부활, 승천은 그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약속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분의 약속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삶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누가복음에 관한 조엘 그린(Joel Greene)의 매우 유용하고 교훈적인 아이디어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이것은 세션 6, Darrell Bock의 신학, 새로운 공동체입니다.